

사무엘상 20. 요나단의 우정과 다윗을 시기하는 사울 (삼상 18 장 1-30 절)

들어가기

본 장을 시작으로 20 장까지는 다윗이 사울의 궁정에서 섬긴 일을 언급하며, 특별히 다윗과 요나단의 짝은 우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. 지난 시간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기적적인 승리를 거둔 다윗은 이를 계기로 점점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과 칭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. 그로 인해 사울은 점점 더 다윗을 시기하며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. 사울은 다윗의 직책을 처음엔 장군에서 나중엔 천부장으로 강등했고, 자신의 딸을 주어 사위로 삼겠다는 조건으로 다윗을 지속적으로 위협 가운데 내 몰았습니다.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다윗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며 점점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.

1.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우정. (1-5 절)

1)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였습니다. (1-4 절)

- ✧ 마음이 하나됨! (1 절)
- ✧ 자기 생명같이 사랑함! (3 절)
- ✧ 언약을 맺음!
- ✧ 자신의 모든 것을 나눔! (4 절) : (옷, 군복, 칼, 활 띠..)

요나단은 가문과 신분을 초월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헌신의 맘으로 다윗을 친구로 삼았고, 자신의 모든 것을 나누며 진심으로 다윗을 사랑하고 섬겨 주었습니다.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된 성도의 사랑이 이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.

2) 다윗은 매사에 지혜롭게 행하며 모든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습니다. (5 절)

- ✧ 이는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!
- 14 절, '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'

잠언 2 장 6-7 절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참된 지혜를 얻게 될 것이라 가르쳐 주었습니다.

2. 다윗의 명성을 들은 사울은 시기하며 불쾌하게 생각하였습니다. (6-16 절)

1) 다윗의 승리를 노래하는 여인들의 노랫말 (6-7 절)

- ✧ '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, 다윗은 만만이로다'

2) 이를 들은 사울은 심히 불쾌해 하며, 그때부터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하였습니다. (8-9 절)

- ✧ '주목하였다' 는 말은 의심과 시기의 눈으로 다윗을 보기 시작했다는 뜻!

잠언 14 장 30 절은 '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' 고 했습니다.

비정상적인 시기와 질투의 마음은 상대방과의 관계뿐 아니라 자신의 인격과 삶을 망가뜨리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, 우리 모두 편견을 버리고 항상 관용과 칭찬을 아끼지 않는 성도들이 됩시다.

3) 다시금 악령에 사로잡힌 사울은 급기야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하였습니다. (10-11 절)

■ 10 절을 주목 - ‘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**힘 있게 내리매**’

- ✧ 시기와 질투심에 사로잡힌 사울에게 임하는 악령의 증세가 더 심해지고 있는 듯~
- 그 결과 두 번씩이나 창을 던져 사울을 죽이려고 시도함!

4)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아는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하여 자신을 떠나도록 하였습니다. (12-16 절)

■ 12 절 주목 - ‘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시므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’

- ✧ 그로 인해 사울은 다윗을 천부장으로 강등하여 자기 곁에서 추방하였음.

5) 그러나 다윗은 쫓겨난 그 위치에서도 변함없이 지혜롭게 처신함으로 온 이스라엘의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.

- ✧ 그로 인해 사울은 다윗을 더 두려워하게 됨!

디모데후서 3 장 12 절에서 바울은, “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” 고 했습니다.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의롭게 살려 할 때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.

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어디를 가든지 그 곳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끼며 형통함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.

3. 사울은 자신의 딸들을 다윗에게 주어 사위로 삼겠다며 블레셋과 싸우게 하였습니다. (17-30 절)

1) 사울은 큰 딸 메랍을 다윗에게 주어 사위로 삼겠다며 블레셋과 싸우게 하였습니다. (17 절)

■ 기억할 것 - 사실 사울은 이미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 딸을 주어 사위로 삼기로 약속함!

- ✧ 곧 딸을 주겠다는 이런 사울의 의도는 결단코 순수한 의도요 약속이 아니었다는 사실.

■ 17 절 후반부 주목 - ‘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’

- ✧ 결국 큰 딸 메랍을 주겠다는 사울의 약속은 다윗을 자신의 손이 아닌 블레셋의 손으로 죽이겠다는 그의 악한 계략이 숨어 있는 약속이었다는 사실을 쉽게 발견!

- 2) 다윗은 이런 사울의 제안을 정중하고 겸손하게 거절하였습니다. (18 절)
 - ✧ ‘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?’
- 3) 결국 사울은 약속을 어기고 큰 딸 메랍을 므홀랏 사람 아드리엘의 아내로 주었습니다.(19 절)
 - ✧ 하나님이 떠난 사울의 점점 더 악해지는 비극적인 인간상을 보게 됨
- 4) 사울은 둘째 딸 미갈이 다윗을 사모한다는 것을 좋게 여기고 다시금 미갈을 주는 조건으로 다윗에게 블레셋과 싸울 것을 명하였습니다. (20-21 절)

■ 21 절 주목 : ‘(사울이)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...’

- ✧ 곧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계속된 사울의 거짓 약속
- ✧ 특별히 더 추가된 사울의 요구 조건? --- ‘블레셋 사람들의 표피 백 개!’
 - 블레셋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부탁이라기 보단 철저히 다윗을 위험에 빠트려 죽이고자 하는 흥계에 불과함!

- 6) 이런 사울의 요구를 정중히 거절하던 다윗은 마침내 사울의 명을 따라 블레셋 사람들의 표피 200 개를 정한 기간 안에 구해와 결국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. (27 절)
- 7) 다시금 사울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으며, **더욱 더** 다윗을 두려워하며 평생 다윗의 대적이 되었습니다.

✚ **오늘 내용 중에 개인적으로 깨달았거나 새롭게 다짐한 내용이 있다면?**